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관계: 어린이집 전문성 및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도의 조절효과

강수정¹⁾ 박성애²⁾

요약

본 연구는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어린이집 만족도가 두 변인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이때 어린이집 만족도를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와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도로 나누어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어머니 2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조절효과를 검토한 결과, 어린이집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만이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집이 부정적 정서성과 같은 까다로운 기질의 영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를 위해서는 어린이집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부정적 정서성, 양육효능감, 어린이집, 전문성, 의사소통

I. 서론

영아기는 발달적 특성으로 인해 양육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시기로 나타난다. 어머니는 출산 후 달라진 자신의 신체적 변화 및 환경적 변화에 적응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자녀를 돌보는 새로운 과업을 맡게 된다. 영아기는 월령에 따라 발달의 변화도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양육 패턴의 변화와 이에 대한 적응이 수시로 요구된다. 또한 어린 영아는 잦은 수유가 필요하고 불규칙한 수면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양육자의 돌봄을 요구하기도

1) 덕성여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조교수

2) 덕성여자대학교 상담·산업대학원 아동·가족상담전공 석사

한다. 이로 인해 양육자는 충분히 휴식하거나 질 높은 수면을 취하기 어렵고, 불규칙한 생활 패턴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는다(강수경, 2021). 실제로 최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시기가 24개월까지인 영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육아정책연구소, 2021). 이처럼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는 높은 양육 스트레스와 낮은 삶의 질을 경험해, 결과적으로 양육효능감을 높이기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박성애·강수정, 2024; 방은주, 2018; 유주연, 2018; Valla, Helseth, Småstuen et al., 2022).

양육효능감은 부모가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 갖는 신념을 의미하는 것으로(Coleman & Karraker, 1998), 어떤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인 자기 효능감(Bandura, 1997)을 자녀 양육 상황에 적용한 개념이다. 즉, 부모 자신이 지각하는 부모로서의 성공적 수행 능력에 대한 지각 또는 기대감을 뜻한다(하지영·서소정, 2010).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는 일상적인 자녀 양육 상황에서 요구되는 적절한 행동양식(예: 우는 아이를 진정시키는 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행동양식을 실행할 수 있다는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다. 또한 자신의 노력에 자녀가 적절한 반응을 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의미있는 타인이 자신의 양육 노력을 지지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Coleman & Karraker, 1998).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는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양육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양육효능감이 낮은 어머니는 양육 상황에서의 어려움을 회피하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Coleman & Karraker, 1998).

영아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높이려는 시도는 매우 의미있는 개입방법이 된다.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가능하게 하고,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촉진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문영경·민현숙, 2012; Troutman, Moran, Arndt et al., 2012). 먼저 어머니 측면을 살펴보면,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반면 권위주의적인 통제적 양육행동은 적게 하는 경향이 있으며(김미정·이경님, 2011; Chau & Giallo, 2014), 양육스트레스 수준을 낮게 보고한다(김혜라·김진경, 2012).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자녀의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는 활발한 놀이성(정혜욱, 2014), 우수한 발달 수준(김영미·김정미, 2017; Rominov, Giallo, & Whelan, 2016), 높은 자아존중감(조경희·도미향, 2016), 낮은 스트레스(이진화, 2018) 및 높은 주관적 안녕감(Albanese, Russo, & Geller, 2018)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높여주기 위한 시도는 어머니의 바람직한 양육 행동을 가능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자녀의 전반적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중에서도 까다로운 기질의 영아를 양육하는 경우는 양육효능감의 측면에서 더욱 취약한 집단이 될 수 있다. 영아의 기질적 특성 중 특히 부정적 정서성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는 상당히 일관적으로 보고된다(이경하·서소정, 2012; 정혜옥, 2014; Troutman, Moran, Arndt et al., 2012). 자기 효능감 이론에 따르면(Bandura, 1997), 자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해당 분야에서 작은 경험이라도 성공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것이다. 어머니가 자신의 양육 행동에 대해 받는 가장 즉각적이고 명확한 피드백은 자녀가 보이는 반응이다. 그러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영아는 쉽게 짜증을 내고 울음을 보이며 잘 진정되지 않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자신의 양육행동에 대해 긍정적 피드백을 받고 성공 경험을 축적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Troutman, Moran, Arndt et al., 2012). 실제로 기질을 부정적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으로 나누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토했을 때, 부정적 정서성은 다른 기질적 특성에 비해 상당히 일관적으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영경·민현숙, 2012; 이운정, 2014; 정혜옥, 2014). 따라서 부정적 정서성과 같은 까다로운 기질 특성이 높은 영아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지원해주기 위한 지지체계는 더욱 시급하게 요구된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위한 보편적 양육지원 기관으로서, 자신의 양육행동에 대한 효능감을 갖기 어려운 어머니들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다. 어린이집과 같은 기관의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지지-효능감 모델(support-efficacy model)'을 통해 설명 가능하다. 이 모델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를 통해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정서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 즉, 정서적 지지를 받으면 직접적으로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으며, 간접적으로도 정서적 지지를 통해 스스로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기도 한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지지 자원을 통해 양질의 정보를 제공받고,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과 전략을 획득, 연습 및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음으로써 자기 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다(Antonucci, Vanderwater, & Lansford et al., 2000). 이러한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 자원의 전문성이 주요하게 작용한다. 즉,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자기 효능감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지-효능감 모델에 비추어 보건대, 어린이집은 어머니들을 위한 정서적 지지뿐 아니라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다. 어린이집은 가장 직접적으로 영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에게 물리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양육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지원해주는 정서적인 지지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유주연·

이세파리나·전가일, 2012).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은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적 자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은 까다로운 기질의 영아를 양육하는 어머니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양육효능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어린이집 만족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서소정·김현정·김상점, 2019; 유주연, 2018). 그러나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이 영아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어린이집은 영아를 위한 양육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더해가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영아의 비율은 2015년 48.3%, 2018년 55.0%, 2020년 55.4%로 증가하고 있다(김은설·최윤경·권미경 외, 2021). 특히 0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의 증가 폭은 더욱 커, 2018년 16.5%, 2020년 19.3%, 2022년 23.3%로 보고된다(보건복지부, 2022). 어린 영아에 대한 보육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는 어린이집 70곳에서 0세 전담반 100개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유성열, 2023. 2. 9.). 초저출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혹은 이용하고자 하는 영아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당 비율의 영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이 양육에 대한 효능감을 갖는 데 어려움이 있는 어머니들을 위한 지지적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 증가는 유아와 비교해 최근의 현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가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한정적으로 이루어졌다.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가정의 연계 프로그램이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들이 한 축을 이룬다(박신영·이진희, 2013; 이숙화·황성하·남미경, 2010). 혹은 교사와 어머니의 관계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들도 보고되었다(김정미·문승미·김유경 외, 2013; 유주연, 2018). 그러나 여전히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가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그 양과 범위 면에서 제한적이다.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예측하는지 검토해 보고,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가 두 변인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신나리와 안재진(2011)은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척도 중 타당도와 신뢰도 검토가 이루어진 척도를 찾아보기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어린이집 만족도에 대한 척도를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와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도'의 2개 요인으로 구성해 개발한

바 있다. 이때 전문성은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보육 교직원의 역량과 관련된 차원을 의미하며, 의사소통은 어린이집 교직원과 부모 간의 관계 차원의 요인을 의미한다. 두 요인을 구분할 때 특히 유의할 사항은, 보육교사와 아동 간의 상호작용의 경우 의사소통이 아닌 전문성 영역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는 보육맥락에서 교사와 영유아 간의 상호작용은 교사의 전문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이다(박찬옥·구수연·이옥임, 2010). 신나리와 안재진(2011)이 제안한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도는 부모가 도움이 필요할 때 보육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거나, 보육 서비스에 대한 불만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준다거나, 부모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존중해주는 것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보육교직원과 아동의 관계보다는 보육교직원과 부모의 관계에서의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도에 주목한 척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 요인은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고유한 요인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보육서비스의 전문적인 속성보다는 비전문적 특성과도 관련될 수 있어 반드시 전문적 속성으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신나리·안재진, 2011).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활용하는 어린이집 만족도에 대한 척도는 영양, 보육프로그램, 안전, 시설, 교직원 등과 같은 객관적 지표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신나리와 안재진(2011)이 제안한 어린이집 만족도에 대한 척도는 하위요인을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와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도로 구분함으로써, 어린이집의 효과성에 대한 만족도를 보다 심도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기존의 어린이집 만족도에 대한 척도가 어린이집의 구조적 질에 주목했다면 신나리와 안재진(2011)의 척도는 과정의 질에 보다 주목하였다(방혜나,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어린이집 만족도가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검토하는 데 있어, 어린이집 만족도의 하위요인을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와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도로 구분해 적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육 서비스의 과정 중 어떤 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때 조절효과가 의미있게 나타나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모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변인들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즉,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부모의 학력과 가구 월 소득(민정원·김정원, 2018; 이운정, 2014; Coleman & Karraker, 2000), 어머니의 연령(류기자·김영주·송연숙, 2009; 이운정, 2014), 어머니의 취업 지위(서소정·김현정·김상점, 2019; 이운정, 2014)를 통제변인으로 고려하였다. 추가로 배우자와의 공동양육 수준(백지희, 2022; 양예진·도현심, 2019)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함으로써, 가장 주요한 사회적 지지 자원 중 하나인 배우자 요인의 영향력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도출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1. 부모의 학력, 가구 월 소득, 어머니 연령, 어머니 취업지위 및 배우자의 공동양육 수준을 통제했을 때,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유의하게 예측하는가?
- 연구문제2. 부모의 학력, 가구 월 소득, 어머니 연령, 어머니 취업지위 및 배우자의 공동양육 수준을 통제했을 때, 어린이집의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는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하는가?
- 연구문제3. 부모의 학력, 가구 월 소득, 어머니 연령, 어머니 취업지위 및 배우자의 공동양육 수준을 통제했을 때, 어린이집의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도는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국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의 어머니 중 24개월 이하 월령의 영아 어머니 24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국내 리서치 전문업체 엠브레인을 통해 대상자를 변별한 뒤 연구에 적합한 표본을 확보하고, 이중 조사 참여에 동의한 이들이 온라인 설문 에 응답한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가.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영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Buss와 Plomin(1984)의 EAS(Emotionality, Activity, Sociability) 중 부정적 정서성 영역에 해당하는 5개 문항을 활용해 검토되었다. 문항은 4점 Likert척도로 '우리 아이는 잘 운다', '우리 아이는 쉽게 기분이 나빠진다', '우리 아이는 화가 났을 때 격하게 반응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영아가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며, Cronbach's α .84로 양호한 수준의 신뢰도를 나타냈다.

나.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측정 도구로는 김정미, 임희선, 그리고 허성호(2014)에 의해 개발된 한국판 양육효능감 검사(Korean version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K-PSOC)가 사용되었다.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진 이 도구에서 부모 역할 수행으로 느끼는 만족 및 안정을 뜻하는 요인인 '안정감'의 7문항은 역코딩 후 분석이 이루어졌다. 문항은 4점 Likert척도로 '나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다룬다', '나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있다', '나는 때때로 부모로서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부모로서의 역할은 나를 긴장하고, 불안하게 만든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유능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하며, Cronbach's α 는 .87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

(N = 246)

변인	구분	빈도 n(%)
어머니 연령	만 29세 이하	16(6.5)
	만 30세 ~ 만 34세	79(32.1)
	만 35세 ~ 만 39세	105(42.7)
	만 40세 이상	46(18.7)
어머니 학력	고졸 이하	15(6.1)
	2~3년제 대학 졸업	41(16.7)
	4년제 대학 졸업	153(62.2)
	대학원 졸업	37(15.0)
배우자 학력	고졸 이하	21(8.5)
	2~3년제 대학 졸업	46(18.7)
	4년제 대학 졸업	145(58.9)
	대학원 졸업	34(13.8)
어머니 근로형태	비근로 중	99(40.2)
	근로 중	147(59.8)
가구 월 평균 소득 (세후기준)	200만원 미만	5(2.0)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46(18.7)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89(36.2)
	6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70(28.5)
	800만원 초과	36(14.6)

변인	구분	빈도 n(%)
거주 지역	서울·경기·인천	161(65.4)
	충청·대전·세종	24(9.8)
	전라·광주	17(6.9)
	경상·대구·울산·부산	38(15.4)
	강원·제주	6(2.4)
영아 월령	6개월 미만	7(2.8)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	53(21.5)
	13개월 이상 18개월 이하	101(41.1)
	19개월 이상 24개월 이하	85(34.6)
영아 성별	남아	98(39.8)
	여아	148(60.2)

다. 어린이집 만족도

어린이집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신나리와 안재진(2011)이 개발한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총 21문항이며,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및 보육교직원의 역량에 대한 만족을 의미하는 '전문성'을 측정하는 16문항, 부모와 보육교직원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을 의미하는 '의사소통'을 측정하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성 문항의 내용으로는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는 아이를 교육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는 아이가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안다',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아이의 심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보살펴주는 것 같다' 등이 있으며, 의사소통 문항의 내용으로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교사와 상담이나 통화하는 것이 편리하다', '나는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나의 의견과 방식을 우선시하고 존중해준다' 등이 있다. 문항은 4점 Likert척도로 이루어졌으며, Cronbach's α 는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 .74,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도 .92로 나타나 양호한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라. 통제변인

보다 명확한 연구 결과의 도출을 위해 선행연구를 근거로 연구모형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되는 요인들을 통제하였다. 어머니의 연령 및 근로여부(권정운·정미라·박수경

외, 2013; 박미숙·정희정, 2018), 부모의 학력(노혜란·김상옥, 2020; 민정원·김정원, 2018; 이서영, 2021), 가구 월 평균 소득(민정원·김정원, 2018; 이서영, 2021; 조원주·정수진, 2020)을 비롯해 배우자의 공동양육 수준(김지현·최윤경, 2020; 백지희, 2022)이 분석 시 통제변수로 투입되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1년 단위인 연속변수로 보고하도록 하였으며(예: 32세 → 32로 코딩), 어머니의 근로여부는 전일제 혹은 시간제 근무하지 않음 0, 전일제 혹은 시간제 근무 1로 코딩하였다. 부모의 학력은 ① 고졸 이하, ② 2~3년제 대학 졸업, ③ 4년제 대학 졸업, ④ 대학원 졸업으로 코딩하였고, 가구 월평균 소득은 ① 200만원 미만, ②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③ 4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④ 600만원 이상~800만원 미만, ⑤ 800만원 초과로 코딩하였다. 배우자의 공동양육 수준은 전선영과 이희선(2022)이 개발한 어머니용 부모공동양육척도(Coparenting Scale for Mother, CS-M)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자기보고식 척도이며, 배우자와 얼마나 일치된 양육 기준을 가지고 양육 분담 및 협력을 하고 있는지 측정한다. 각 문항은 4점 Likert척도로 이루어졌으며, Cronbach's α 는 .94로 나타나 양호한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3. 분석방법

모든 자료의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2를 활용해 수행되었다. 주요 변인들의 기본 특성 파악을 위해 기술통계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어린이집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린이집 만족도의 경우,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와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도로 구분해 검토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기술통계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기술통계 결과, 왜도가 -.27에서 .36, 첨도가 -.13에서 1.73의 범위 내에 분포하여 절대값이 왜도 3이하, 첨도 8이하를 나타내야 한다는 정규성의 전제조건을 만족하였다(Kline, 2015).

〈표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i>M</i>	<i>SD</i>	<i>Ske</i>	<i>Kur</i>
1. 부정적 정서성	2.50	.59	.36	-.13
2.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	3.17	.39	-.27	1.73
3.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도	2.92	.45	-.24	.72
4. 양육효능감	2.66	.42	-.12	.74

(N = 246)

2.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관계 및 어린이집 만족도의 조절효과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어머니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 및 이에 대한 어린이집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전 Durbin-Watson 검정을 수행하였으며, 결과값이 모두 2에 가까운 1.93으로 나타나 잔차 간의 독립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상호작용항으로 인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다루고자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평균중심화 하였으며, 모두 공차한계는 .1이상인 .59~.95, 분산팽창지수(VIF)는 10이하인 1.05~1.67에 분포하여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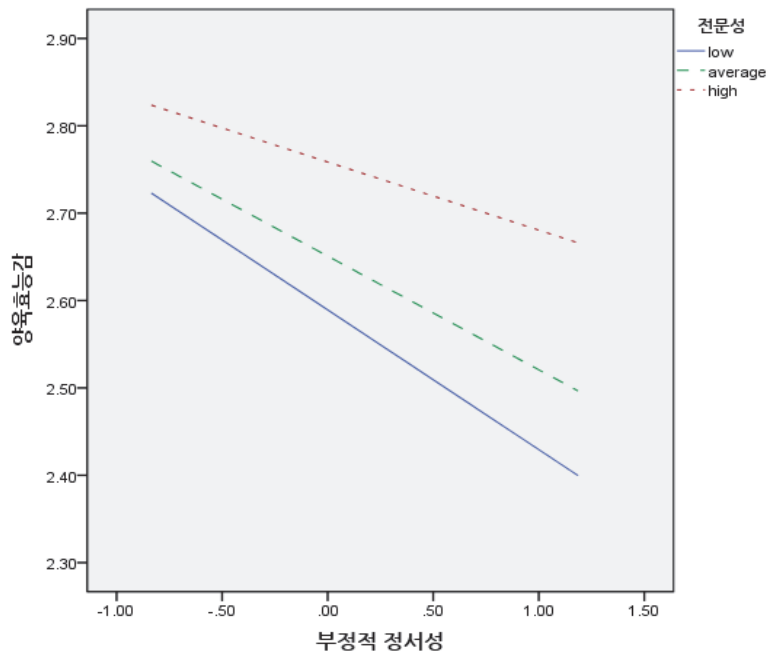
어린이집 만족도를 하위요인에 따라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와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도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어린이집 전문성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회귀모형은 1단계($F=13.21, p<.001$), 2단계($F=12.34,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1단계에서 통제변수를 투입하여 검토한 결과,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beta = -.28, \Delta F=13.21, p<.001$), 이는 29%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2단계에서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검토한 결과, 어린이집 만족도의 하위변인인 전문성은 부정적 정서성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였으며($\beta=.11, \Delta F=4.01, p<.05$) 이는 29%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즉, 어린이집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감소하였다. [그림 1]은 어린이집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가 영아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는 양상을 도식화한 것이다.

〈표 3〉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관계와 어린이집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의 조절효과

(N = 246)

	1단계				2단계			
	B	SE	β	t	B	SE	β	t
(상수)	2.34	.28		8.33***	2.34	.28		8.37***
연령	-.01	.01	-.09	-1.59	-.01	.01	-.10	-1.75
근로여부	-.09	.05	-.10	-1.78	-.09	.05	-.11	-1.89
통제 학력	.08	.04	.15	2.15*	.09	.04	.15	2.20*
배우자 학력	-.08	.04	-.15	-2.18*	-.09	.04	-.16	-2.36*
가구 월 평균 소득	.07	.03	.16	2.50*	.07	.03	.17	2.76**
배우자 공동양육	.16	.05	.20	3.41**	.17	.05	.22	3.63***
부정적 정서성(A)	-.12	.02	-.28	-4.96***	-1.24	.02	-.30	-5.26***
전문성(B1)	.10	.02	.23	4.08***	.10	.02	.23	4.04***
(A)×(B1)					.05	.02	.11	2.00*
R^2 ($adjR^2$)	.31(.29)				.32(.29)			
F	13.21***				12.34***			
F변화량	13.21***				4.01*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1] 부정적 정서성과 양육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전문성 만족도의 조절효과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어린이집 만족도 하위변인 중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회귀모형은 1단계($F=15.35, p<.001$), 2단계($F=14.07,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1단계에서 통제변수를 투입하여 검토한 결과, 부정적 정서성은 양육효능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beta=-.29, \Delta F=15.35, p<.001$), 이는 32%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2단계에서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검토한 결과, 어린이집 만족도의 하위변인인 의사소통은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beta=.09, \Delta F=2.88, p=.09$).

<표 4>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관계와 어린이집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도의 조절효과

($N = 246$)

	1단계				2단계			
	<i>B</i>	<i>SE</i>	β	<i>t</i>	<i>B</i>	<i>SE</i>	β	<i>t</i>
(상수)	2.46	.28		8.90***	2.48	.28		8.98***
연령	-.01	.01	-.10	-1.80	-.01	.01	-.11	-1.90
근로여부	-.07	.05	-.09	-1.50	-.07	.05	-.09	-1.55
통제 학력	.08	.04	.14	2.05*	.08	.04	.14	2.13*
배우자 학력	-.08	.04	-.15	-2.16*	-.08	.04	-.16	-2.30*
가구 월 평균 소득	.06	.03	.15	2.39*	.06	.03	.15	2.53*
배우자 공동양육	.13	.05	.17	2.96**	.13	.05	.17	2.98**
부정적 정서성(A)	-.12	.02	-.29	-5.34***	-.13	.02	-.31	-5.54***
의사소통(B2)	.13	.02	.30	5.41***	.12	.02	.29	5.25***
(A)×(B2)					.04	.02	.09	1.70
$R^2(adjust R^2)$.34(.32)				.35(.32)			
<i>F</i>	15.35***				14.07***			
<i>F</i> 변화량	15.35***				2.88			

* $p<.05$, ** $p<.01$, *** $p<.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질문지법을 사용하여,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토하였으며 어린이집 만족도가 두 변인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때, 어린이집 만족도의 효과를 하위변인에 따라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와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도로 나누어 각각 조절효과 분석을 시행하였다. 통제변인으로는 부모의 학력, 가정 월 소득, 어머니 연령, 어머니 취업지위 및 배우자의 공동양육 수준과 같은 변인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즉, 영아가 부정적 정서를 쉽게 느끼며 진정되기 어려운 기질을 높게 가진 경우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으면 어머니의 양육 행동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여주기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머니가 높은 수준의 양육효능감을 갖기 어렵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이경하·서소정, 2012; 이운정, 2014; 정혜옥, 2014; Troutman, Moran, Arndt et al., 2012). 특히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변인(부모의 학력, 가정 월 소득, 어머니 연령, 어머니 취업지위) 및 배우자와의 공동 양육 수준을 통제변인으로 검토했다는 데 더욱 의의가 있다. 즉, 어머니와 관련된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주요한 사회적 지지 자원인 배우자와의 공동 양육 수준(양예진·도현심, 2019; 백지희, 2022)과 같은 변인을 포괄적으로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대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어린이집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는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유의하게 조절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선행연구(유주연, 2018; 조해경·고영미·조부경, 2011)와 맥을 같이 한다. 부모와 보육교사의 관계가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검토한 선행연구(유주연, 2018)에서 부모-교사의 관계를 하위요인별로 나누어 검토한 결과, 교사가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높이는 주요 하위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가 부모와 함께 공동의 교육목표를 세우고 그 과정에 부모를 참여시키는 협력의 정도가 양육효능감을 높이는 하위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높이는 교사-부모 관계는 교사가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교육목표를 구성하고 이 과정에 부모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능력, 즉 보육교사의 전문적인 능력에 기반하는 관계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어린이집의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인 이유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보육서비스를 통해 어머니가 성공적인 양육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을 제공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부모가 어린이집의 전문성에 대해 높은 만

족감을 보였다. 이는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의 전문성이 높았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전문성이 높은 보육 서비스는 부모로 하여금 자녀의 개별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발달 및 양육에 대한 양질의 정보 교류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긍정적 양육행동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 지원책이 될 수 있다(Elicker, Wen, Kwon et al., 2013). 어린이집으로부터 전문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 어머니는 가정에서 바람직한 양육방식을 적용해 보는 과정에서 성공 경험을 축적할 가능성이 높는데, 이러한 성공 경험의 축적은 양육효능감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Bandura, 1997). 부정적 정서성 기질이 높은 영아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경우 자신의 양육행동에 대한 성공 경험을 쌓는 데 특히 취약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Troutman Moran, Arndt et al., 2012), 양육에서의 성공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전문성 있는 보육 서비스 제공은 더욱 중요할 수 있다.

추가로, 어린이집의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가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한 이유에 대해서는 Shanley와 Jubb-Shanley(2007)의 회복동맹 이론을 통해서도 설명 가능하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본인의 상황에 대한 통제감을 키워가게 된다. 즉, 보육 전문가인 어린이집 교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협력을 통해 어머니가 양육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육교사는 전문가로서 부모가 양질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긍정적이고 일관적인 양육행동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강정숙과 강현아(2015)는 회복동맹이론에 기반하여, 전문 인력이 부모와의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그 속에서 전문성을 높여 적용할 때 부모의 내적 힘을 높이고 양육효능감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셋째, 어린이집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도는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유의하게 조절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선행연구(유주연, 2018; 조해경·고영미·조부경, 2011)와 맥을 같이 한다. 유주연(2018)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가 얼마나 진실되게 부모와 의사소통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는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물론 부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교사에게 요구되는 주요 자질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교사가 단순히 부모와 활발하게 의사소통하고 반응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유주연(2018)의 연구는 부모와 교사 간의 단순한 의사소통의 활성화보다는 교사의 전문적 역량에 기반한 상호작용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향상에 더욱 결정적인 요인

임을 시사하였다.

유사하게, 조해경, 고영미, 그리고 조부경(2011)의 연구는 유치원에서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교사와 어머니 간의 의사소통 과정을 활성화하는 것이 부모 효능감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지 검토하였으나, 부모 효능감 전체 점수에 대해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단순히 유치원에서의 교육활동에 대해 교사와 어머니 간 의사소통 과정을 활성화하는 것만으로는 부모 효능감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그 보다는 부모가 당면한 양육에서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해 가는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즉, 단순한 의사소통의 활성화를 넘어 자녀와의 대화 방법, 부모 역할에 대한 방향 제시, 자녀와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 등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 향상에 더욱 효과적이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안하고 있다. 조해경, 고영미, 그리고 조부경(2011)의 연구도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사소통만 활발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더욱 핵심적인 요인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월령 24개월 이하의 영아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이는 영아기에 해당하는 월령이기는 하나, 영아기는 발달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월령에 따라 필요한 보육 서비스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영아기의 월령을 더욱 세분화하여 높은 부정적 정서성과 같은 까다로운 기질의 영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에게 필요한 지원 체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두 변인은 양방향적인 관계로, 양육효능감이 낮은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 기질을 더욱 높게 인식했을 가능성도 있다(Verhage, Oosterman, & Schuengel, 2013). 따라서 두 변인의 양방향적 관계를 고려하여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종단적 연구설계를 기반으로 한 분석을 수행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모든 변인은 어머니의 자기보고식 설문조사에 의해 측정되었으며 한 시점에서 조사되었다는 점에서 측정 방법의 한계가 있다. 이미 특정 어린이집을 선택한 어머니의 경우 자신의 선택을 보다 타당화 하는 방향으로 설문에 응답했을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선택 시점 및 각 변인에 대한 측정 방식을 다각화하여 보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연구문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와

관련된 사회인구학적 변인(부모의 학력, 가정 월 소득, 어머니 연령, 어머니 취업지위) 및 배우자 공동양육 수준과 같은 변인을 포괄적으로 통제하더라도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여전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부정적 정서성과 같은 까다로운 기질의 영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의 양육효능감을 향상하기 위한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둘째, 부정적 정서성과 같은 까다로운 기질의 영아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어린이집의 전문성은 핵심적인 하위요인으로,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단순히 부모의 의견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만으로는 어린이집의 중재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어린이집이 전문성을 핵심적인 기반으로 한 우수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생애 초기 단계인 영아기부터 어머니들이 자녀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를 바탕으로 양육에 대한 효능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Shiner & Caspi, 2003). 이는 어머니가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가지고 양육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기반이 되어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기질의 영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이 양육효능감 향상 면에서 취약한 집단임을 확인하였으며, 전문성을 갖춘 어린이집이 이러한 어머니들을 위한 지원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어린이집이 까다로운 기질의 영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을 위한 사회적 중재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전문적 수준을 올리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어린이집 만족도의 하위요인을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와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도로 나누었을 때,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가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영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의 양육효능감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정부는 보육현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해 왔으며 임금 보조 및 어린이집 평가제 실시와 같은 정책을 시행해 왔다(임민정, 2020). 그러나 여전히 보육교사 자격증은 취득의 장벽이 낮으며, 보육교사들이 적정 수준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이미화·최윤경·이정원 외, 2016).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보육 분야에 대한 전문 인력의 유입이 저해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어린이집의 전문

성에서 그 기관을 구성하는 교사가 가지는 전문적 역량은 핵심적 구성 요인이 된다. 따라서 어린이집에 전문적 인력의 유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 강화 및 그에 맞는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더욱 높은 수준으로 요구된다.

특히 유아와 비교해 영아를 양육하는 보육교사의 전문성은 교사-아동 간 관계의 강도와 친밀성에 더욱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Wittmer & Petersen, 2013). 현대 사회의 특성 상 영아들이 하루의 상당시간을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영아가 교사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 시기에 영아와 교사 간 형성된 애착은 영아의 건강한 발달을 촉진하는 주요한 기반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김영숙·신나리, 2013; 신애선, 2017). 영아기는 다른 연령에 비해 교육보다는 일상적인 돌봄에 대한 요구도가 높기 때문에, 교사는 영아에게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긴밀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영아 돌봄을 위한 서비스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낮게 나타나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교사 스스로도 영아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전문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탁정화·황해익, 2012). 영아를 위한 보육서비스의 전문성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은 높은 전문성을 갖춘 보육 인력의 유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어린이집의 전문성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영아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 자료나 홍보 자료 제작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으며, 관련 주제를 다루는 포럼과 같은 기회를 활성화해 적극적으로 공론화 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어린이집을 단순히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보는 관점에서 나아가, 가정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적 지원 기관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아동 양육은 개인이 아닌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이 늘어나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연령이 점차 낮아졌으며, 영아기부터의 보육 수요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김병희·김정준, 2019). 현재의 어린이집은 상당 비율의 영아가 이용하는 보편적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이 양육효능감에 취약한 어머니들을 위한 선제적 중재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다수의 영아 및 어머니들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상당한 사회적 비용의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생애 초기 영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를 위한 지원이 가지는 장기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어린이집이 가정 양육을 지원하는 핵심적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수경(2021). 부부갈등이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동양육과 양육스트레스의 이중 매개효과. *유아교육연구*, 41(3), 317-338.
- 강정숙·강현아(2015). 부모와 전문 인력의 관계가 부모 임파워먼트를 통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52, 1-29.
- 권정윤·정미라·박수경·이방실(2013). 만 2세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한국영유아보육학*, 77, 179-201.
- 김미정·이경님(2011). 영아기와 걸음마기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4), 253-271.
- 김병희·김정준(2019). 어머니의 영아 어린이집 선택 요인과 이용만족도. *영유아교육: 이론과 실천*, 4(1), 77-102.
- 김영미·김정미(201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영아발달 간의 관계 연구: 상호작용 행동과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유아교육연구*, 37(2), 169-187.
- 김영숙·신나리(2013). 영아의 어머니 및 교사에 대한 애착 안정성이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5), 229-249.
- 김은설·최윤경·권미경·최효미·김나영·김자연·박은영(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 조사 보고.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정미·문승미·김유경·안선희(2013).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어머니:교사 관계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4(5), 79-98.
- 김정미·임희선·허성호(2014). 한국판 부모 양육효능감 검사(K-PSOC) 및 배우자 양육협력 검사(K-PAD)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7(4), 1-21.
- 김지현·최윤경(2020). 부의 공동양육이 모-영아 상호작용과 물리적 양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모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 13(3), 53-75.
- 김혜라·김진경(2012). 아동의 발달 특성과 정서성 및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3), 53-67.
- 노혜란·김상욱(2020). 부모상담이 양육효능감과 양육죄책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4(2), 57-78.
- 류기자·김영주·송연숙(2009). 보육시설 영아반에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 *한국보육지원학회지*, 5(1), 1-23.
- 문영경·민현숙(2012). 영아의 기질, 발달수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원이 영아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1(1), 59-70.
- 민정원·김정원(2018).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 부모교육연구*, 10(3), 29-52.

- 박미숙·정희정(2018).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정서표현성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8(3), 21-34.
- 박성애·강수정(2024).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소명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 공동양육의 조절효과. *가정과삶의질연구*, 42(2), 27-44.
- 박찬옥·구수연·이옥임(2010). 영아-교사 상호작용의 이론과 실제. 서울: 정민사.
- 박신영·이진희(2013). 어린이집-가정 연계를 통한 아버지 놀이참여 활동이 놀이신념 및 영아-아버지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육아지원연구*, 8(1), 29-55.
- 방은주(2018).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양육지식, 양육효능감의 관계. *영유아교육: 이론과실천*, 3(2), 61-81.
- 방혜나(2016).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어린이집 이용만족도 예측 요인.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 백지희(2022). 어머니가 인식한 부모공동양육과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양육 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유아교육연구*, 24(4), 90-111.
- 보건복지부(2022).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보육정책.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2000000&bid=0020&act=view&list_no=371193에서 2024년 3월 20일 인출.
- 서소정·김현정·김상겸(2019).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어린이집 만족도의 매개 및 조절효과 연구. *어린이문학교육연구*, 20(3), 361-386.
- 신나리·안재진(2011).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척도 타당화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6, 231-259.
- 신애선(2017). 영아교사의 애착 및 영아의 몸짓(gesture)과 영아 언어발달 간의 관계. *한국보육학회지*, 17(4), 121-143.
- 양예진·도현심(2019). 부부갈등, 부모공동양육 및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한국아동학회*, 40(3), 39-51.
- 유성열(2023. 2. 9.). 서울시, 어린이집 '0세 전담반' 내달 첫 운영.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208/117801082/1>에서 2024년 3월 20일 인출.
- 유주연(2018). 부모-교사 관계가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4(4), 25-41.
- 유주연·이세라피나·전가일(2012). 대한민국 어린이집. 서울: 르네상스.
- 육아정책연구소(2021). 행복한 육아문화 정책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V). 사업보고 2021-01.
- 이경하·서소정(2012). 영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영아발달 간의 관계 연구: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3), 53-77.
- 이미화·최윤경·이정원·도남희·권미경·박진아·이혜민·김영원(2016). 2015년 전국 보육실태 조사: 어린이집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이서영(2021).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취업모의 부부갈등과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130, 1-20.
- 이숙화·황성하·남미경(2010). 보육시설과 가정의 연계를 통한 감각활동이 영아의 신체발달과 영아-부모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6(3), 103-125.
- 이윤정(2014). 아동 기질과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취업모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85, 117-136.
- 이진화(2018).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일상적 스트레스와 행복감이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9(5), 1051-1064.
- 임민정(2020). 보육현장에서의 보육교사 전문성 담론. *유아교육연구*, 40(1), 111-134.
- 전선영·이희선(2020). 어머니용 부모공동양육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8(3), 37-59.
- 정혜욱(2014).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기질만족도 및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9(2), 339-360.
- 조경희·도미향(2016). 어머니의 행복감과 양육스트레스가 유아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양육효능감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1(4), 725-744.
- 조원주·정수진(2020). 부모역할 인식과 양육효능감이 어머니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0), 1079-1104.
- 조해경·고영미·조부경(2011). 유치원 홈페이지를 활용한 교사-어머니 상호작용이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 및 교사신뢰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미디어연구*, 10(3), 225-248.
- 탁정화·황해익(2012). 영아교사의 어려움과 전문성에 대한 인식 및 지원방안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17(2), 73-103.
- 하지영·서소정(2010). 영아의 기질과 발달수준 및 어머니의 양육 특성 변인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1(2), 151-168.
- Albanese, A. M., Russo, G. R., & Geller, P. A. (2018). The role of parental self-efficacy in parent and child well-being: A systematic review of associated outcomes. *Child Care and Health Development*, 45, 333-363.
- Antonucci, T. C., Vanderwater, E. A., & Lansford, J. E. (2000). Social process and development, 79-85. in *Encyclopedia of Psychology* (Volume 1), edited by Kazdin, A. 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Y: W. H. Freeman and Company.
-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Erlbaum.
- Chau, V., & Giallo, R.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fatigue, parenting self-efficacy and behaviour: Implications for supporting parents in the

- early parenting period.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41, 4, 626-633.
- Coleman, P. K., & Karraker, K. H. (1998).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im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 47-85.
- Coleman, P. K., & Karraker, K. H. (2000). Parenting self-efficacy among mothers of school-age children: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predictors. *Family Relations*, 42, 13-24.
- Elicker, J., Wen, X., Kwon, K. A., & Sprague, J. B. (2013). Early Head Start relationships: Association with program outcomes. *Early Education & Development*, 24(4), 491-516.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Rominov, H., Giallo, R., & Whelan, T. A. (2016). Fathers' postnatal distress, parenting self-efficacy, later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emotional-behavioral functioning: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30(8), 907-917.
- Shanley, E., & Jubb-Shanley, M. (2007). The recovery alliance theory of mental health nursing. *Journal of Psychiatric & Mental Health Nursing*, 14(8), 734-743.
- Shiner, R., & Caspi, A. (2003). Personality differences in childhood and adolescent: Measurement, development, and consequenc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4(1), 2-32.
- Troutman, B., Moran, T. E., Arndt, S., Johnson, R., & Chmielewski, M. (2012). Development of parenting self-efficacy in mothers of infants with high negative emotionality.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33(1), 1-18.
- Valla, L., Helseth, S., Småstuen, M. C., Misvaer, N., & Andenaes, R. (2022). Factors associated with maternal overall quality of life six months postpartum: A cross sectional study from The Norwegian mother, father, and child cohort study. *BMC Pregnancy and Childbirth*, 22, 4.
- Verhage, M. L., Oosterman, M., & Schuengel, C. (2013). Parenting self-efficacy predicts perceptions of infant negative temperament characteristics, not vice versa.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7(5), 844-849.
- Wittmer, D. S., & Petersen, S. (2013). Infant and toddler development and responsive program planning. London: Pearson Education.

- 논문접수: 4월 8일 / 수정본 접수 5월 24일 / 게재 승인 9월 13일
- 교신저자: 박성애, 덕성여자대학교 상담·산업대학원 아동·가족상담전공 석사,
bittersweet@duksung.ac.kr

Abstract

Relationship Between Infants' Negative Emotionality and Mothers' Parenting Efficacy: Moderating Effects of Satisfaction with Professionalism and Communication in Childcare Centers

Sujeong Kang, Sung-ae Park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influence of infants' negative emotionality on maternal parenting efficacy was moderated by satisfaction with childcare centers. The moderating effects were explored by dividing satisfaction into two subcategories: "satisfaction with professionalism" and "satisfaction with communication". A survey was conducted with 246 mothers of infants aged 24 months or younger,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revealed that infants' negative emotionality negatively affected maternal parenting efficacy, even after controlling for possible confounding factors. When satisfaction with childcare center was categorized by subfactors, only satisfaction with professionalism showed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hildcare centers can serve as social institutions to support mothers' parenting efficacy, particularly for mothers raising infants with challenging temperaments. Furthermore, this highlights the necessity of policy support to enhance professionalism in childcare centers.

Keyword: negative emotionality, parenting efficacy, childcare center, professionalism, communication